



# 프랑스의 대학제도

정기수 | 전 공주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황을 보면, 대학의 입시 제도를 비롯하여 학부제, 구조조정, 통폐합 등등 대학개혁을 둘러싸고 수많은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대부분 미국 제도만을 보고 이야기할 뿐 유럽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국제통상에 있어서 특정국에의 편중은 피해야 하듯이, 교육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구미 선진제국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오랜 경험이 축적된, 그러면서도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프랑스의 교육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I. 다양한 학위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고교 졸업예정자라면 누구든 아

무런 제한 없이 대학진학을 지원할 수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고등교육에 진학하려면 반드시 바칼로레아(baccalauréat)<sup>1)</sup>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칼로레아에 합격한 뒤에는 어느 고등교육 과정을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한다면 의례히 “대학에 간다”고 말할 정도로 고등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곧 대학(4년제 대학교와 2년제 전문대학)을 가리키듯이 단순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고등교육 기관들이 지극히 다양하고 한 교육기관 안에서도 교육과정이 지극히 복잡하다. 첫째, 고등교육에는 단기과정과 장기과정이 있다. 단기과정에는 2~3년에 준비하는 BTS와 DUT<sup>2)</sup> 그리고 각종 전문학교들이 있고, 장기과정에는 4~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학위를 준비하는 대학과 그랑데콜(Grandes écoles)<sup>3)</sup>이 있다. 둘째, 프랑스 대학에는 우리나라에서처럼 대학원이 따로 있지 않고 한 대학 안에 학사, 석사, 박

1) Baccalauréat는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하고(졸업장) 고등교육 진학자격을 주는 시험이자 그 합격자에게 주는 학위이다. 이 자격 또는 학위의 취득자는 더 이상 시험 없이 대학에 들어간다. 그러나 다른 고등교육 기관들 중에는 경쟁시험으로 입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들도 많다. 그러므로 바칼로레아를 흔히 ‘대학입학자격(시험)’이라고 옳고 있는데 그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2) BTS(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 고등기술자 자격증)는 어떤 고등학교들에 병설되어 있는 2년 과정인 STS(Section de techniciens supérieurs 고등기술자반)의 졸업장. DUT(Diplôme universitaire de technologie 대학 기술학위)는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2년 과정인 IUT(Institut universitaire de technologie 대학 기술원)의 졸업장.

사학위 과정이 있고 그밖에도 수많은 수준의 학위들이 있으며, 각 수준에 따라 직업교육 과정도 있어서 빠르면 대학 2년의 연한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직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 능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학업을 계속하여 더 높은 수준의 자격증(학위)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대학은 모든 바칼로레아 소지자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선택의 자유는 대학들에서 실시하는 사전등록 또는 테스트 제도에 의해, 혹은 RAVEL 정보통신 시스템<sup>4)</sup>의 독단적인 지역배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구청<sup>5)</sup>에서는 RAVEL에 의해 Minitel에서 여러 대학들에 등록한 고교 최종학년 학생들의 지망을 모아 가지고 때로는 지망과 일치하게 또 때로는 일치하지 않게 배정하지만 이 배정 이외에는 어떠한 등록도 불가능하다. RAVEL 사전등록에 이어, 바칼로레아 시험결과가 나오자마자 바칼로레아 취득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식으로 행정등록을 한다. 등록금은 해마다 교육부에서 정해 주는데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에 비하면 보잘 것이 없다. 2001~2002년도(1학년년) DEUG 과정 대학등록금은 133€(186,000원)<sup>6)</sup>이고 그밖에 사회보장, 공제조합, 스포츠협회 등의 가입비가 부가된다.

대학은 3기(期)의 과정(3 cycles)으로 구성된다. 제1기과정에서는 2년간에 DEUG(Diplôme d'études universitaires générales 대학 일반교

육 수료증)라는 학위를 준비하고, 제2기과정에서는 2년간에 학사학위(licence)와 석사학위(maîtrise)(각각 1년 과정)를, 제3기과정에서는 4~5년간에 걸쳐서 박사학위(doctorat)를 준비한다.

본래 기본적인 지식을 전수하던 대학은 오늘날 더욱더 실업계를 향해 문이 열리는 추세에 있다. 프랑스의 대학도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대학들에서 전문직업교육이 발달해 있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은 일반적인 길을 택하여 DEUG에서 박사학위에 이르기까지 한 학과목(예컨대 법률, 경제, 물리 등)의 모든 면을 탐구할 수 있지만, 또한 기업체들의 수요에 잘 맞아 들어가는 직업교육과정을 선택하여 2년 후든 3년 후든 언제든지 고급기술자의 학위(자격증)를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학위들로는, DUT, DEUST, MST, IUP, DESS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학에는 단 한 가지 학사 학위 밖에 없으므로 누구나 어떠한 경우에도 꼬박 4년간을 꿈쩍없이 대학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중등교육 과정에서 프랑스 학생들에게는 진로선택의 기회가 여러 번 있는 데 비해 한국 학생들에게는 단 한 번 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있어서도 프랑스 학생들에게는 첫 학기말부터 언제든지 진로선택의 기회가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는 단 한 번 밖에 그것도 불완전하

3) Grandesécoles은 엄선된 젊은 영재들의 교육기관으로서 프랑스 특유의 교육제도이다. 이 그랑데콜은 우수한 성적으로 바칼로레아를 취득한 뒤 제한된 수의 고등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그랑데콜 준비반'(CPGE)에서 2~3년간 그야말로 피땀 나는 노력으로 형설의 공을 쌓은 뒤에도 치열한 경쟁시험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대표적으로 ENA(국립행정학교), 고등사범학교, 에콜 폴리테크닉 등이 그것이다.

4) RAVEL : Recensement automatique des voeux des élèves, 학생 지망 자동조사등록. 이 제도는 1987년에 Ile-de-France의 세 교육구(Paris, Créteil, Versailles)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나 그 후 고등학생들의 지망을 등록하기 위해 거의 모든 교육구에서 Minitel이 보급되었다.

5) 프랑스는 30개의 교육구(académies)로 나뉘어 있는데 대체로 행정지역(régions) 구획과 일치한다.

6) 금년 5월 하순의 환율 1€=1,400원으로 계산한 것.

“

중등교육 과정에서 프랑스 학생들에게는 진로 선택의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 비해 한국 학생들에게는 단 한 번 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있어서도 프랑스 학생들에게 첫 학기말부터 언제든지  
진로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는  
단 한 번밖에 그것도 불완전하게 밖에 없는 것이다.

”

게 밖에 없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원에  
도 석사와 박사의 두 가지 학위 밖에 없으니, 프랑  
스의 다양한 학위들과 비교된다고 하겠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수님들이 대체로 인정  
이 많으셔서 학생들이 일단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  
면 거의 다 탈락없이 졸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만 프랑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바칼로레아  
소지자는 더 이상의 입학시험 없이 대학에 들어가  
지만, 초·중등학교에서 유급률이 높듯이 대학에서  
도 수많은 학생들이 첫해부터 유급하고 혹은 몇 해  
못 가서 탈락한다. 그리하여 65.5%의 학생들만이  
그들의 대학 첫 학년말까지 처음 입학했을 때의 교  
육과정(학과)에 붙어 있고, 10%는 다른 교육과정  
으로 진로를 바꾸고(전과·전학하고), 24.5 %는  
대학을 포기한다.<sup>7)</sup> 실제로 같은 교육과정에 붙어  
있는 학생들 가운데, 2년 내지 5년 전에 DEUG에  
들어온(즉 대학 첫 학년에 들어온) 10명 중 8명만  
이 마침내 그들의 소중한 학위 DEUG 를 취득하는

데, 이 학생들 중 2년간에 취득하는 학생수는  
45.5%에 불과하다.

고등교육에 진학하는 바칼로레아 시험 합격자들  
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등록하지만 그들 중 겨우 3  
분의 1만이 2년 안에 DEUG를 취득한다. 그렇게  
대변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다른 학생들은 어떻  
게 되는가? 3분의 1은 끝까지 버텨 3~4년 또는 5  
년 안에 학위를 따낸다. 포기한 학생들 중 70%는  
대개 BTS나 IUT로 진로를 바꾼다. 그리고 제1기  
과정에 등록한 신입생들 중 7%는 실제로 1년 후에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8)</sup> 이와 같은 현  
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재미나는 것은,  
19세 미만에 바칼로레아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은  
그 55.5%가 대변에(즉 2년 안에) DEUG를 취득  
한 반면, 19세 넘어서 바칼로레아를 취득한 학생들  
은 그 비율이 23.2%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기술  
바칼로레아<sup>9)</sup> 취득자들인데, 그들은 대학교육의 개

7) *Bonjour tristesse* (1954) (『슬픔이여 안녕』)로 천하에 명성을 떨쳤던 Françoise Sagan 같은 재원작가도 DEUG를 따지 못하고 대학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한때 화젯거리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이 소녀작가의 불명예가 된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의 작가로서의 성공이 그것을 보상해 주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8) 출처 : 2001년 2월 21일자 *Lettre de l'éducation*.

9) 바칼로레아에는 일반부문, 기술부문, 직업부문 등 3개 부문이 있다.

넘적이고 추상적인 접근 앞에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 중 겨우 17%만이 2년 안에 DEUG라는 관문을 통과한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 부문 바칼로레아 취득자들보다도 거의 5배가 더 많이 도중에 탈락하고 만다. 들어가지만 하면 의례히 나올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허술한 것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DEUG 과정의 교육연한은 2년이지만 1년은 더 유급할 수 있으므로 3회의 등록이 허가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1회 내지 2회의 추가 등록이 허용되므로 DEUG 학위는 최대한 5년 이내에 취득해야 한다. 또 진로변경에 관해서는 벌써 DEUG 제1학년 제1학기 말부터, 학생이 원하면, 수용 가능 여부에 따라서, 다른 DEUG나 같은 DEUG의 다른 분과로, 또는 다른 교육기관(DUT, BTS, 전문학교)으로 전과, 전학을 할 수 있다. 몇몇 대학들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첫 학년이 다 끝난 뒤에 그렇게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길을 널리 열어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 Ⅲ. 유연한 학제

초·중·고등의 전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통적으로 유급제를 활용함과 동시에 거의 언제나 적절히 진로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는 프랑스의 유연한 학제에 접할 때, 사실상 유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로변경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의 학교제도가 얼마나 경직해 있는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최대한으로 진로선택의 자유를 가능케 해 주고 있는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교육의 본질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국시(자유, 평등, 박애)

인 '자유'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다.

#### 1. 제1기 과정 - DEUG

대다수의 학생들은 DEUG 쪽으로 간다<sup>10)</sup>. DEUG에는 아래와 같이 아홉 가지 분야의 학위가 있다 : 과학·기술, 체육·스포츠활동, 어문학, 예술, 인문·사회과학, 신학, 법학, 경제·경영, 경제·사회행정. 또 이들 분야에는 제각기 여러 개의 분과(分科)가 있고 각 분과는 또 선택과목을 갖는다. DEUG의 목표는 제2기과정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어떤 학생들은 상업학교(경제학 DEUG 취득 후)나 기사학교(과학·기술 DEUG 취득 후)에 또는 전문학교에 들어가기도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DEUG에는 9개 분야의 학위가 있고 각 분야의 학위에는 또 여러 개의 분과(分科, mentions)가 있으며 각 분과는 선택과목(options)을 가질 수 있다. DEUG를 위해서는 단지 3회의 등록만이 허가된다(1년의 유급이 있을 경우). 그러나 예외적으로 1회 내지 2회의 추가 등록이 허용될 수 있다. 1년은 2 학기로 나뉜다. DEUG 제1학년 제1학기 말에,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정이 가능하면, 다른 DEUG나 같은 DEUG의 다른 분과 쪽으로, 혹은 다른 교육과정(DUT, BTS, 전문학교) 쪽으로 진로를 바꿀 수 있다. 제2학년때도 전과(같은 DEUG 내에서 다른 분과로), 전학(다른 교육과정으로) 등 진로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학기마다 신중하게 선택과목을 정한다.

DEUG의 각 분야와 각 분과에는 어떤 바칼로레아의 소지자들이 진학하는가? 특별한 제한은 없지

10) 그 밖의 학생들은 IUT, STS, CPGE로 간다.

만 특정 분야와 분과에의 진학에 특히 적절한 부문과 계열의 바칼로레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바칼로레아에는 일반, 기술, 직업의 3개 부문의 바칼로레아가 있다. 일반부문 바칼로레아에는 문과(Bac L), 경제·사회(Bac ES), 이과(Bac S)의 3개 계열이 있고, 기술부문 바칼로레아에는 과학과 3차산업기술(Bac STT), 과학과 산업기술(Bac STI), 과학과 실험실기술(Bac STL) 등 8개의 계열이 있다. 프랑스 학생들은 이러한 바칼로레아의 부문과 계열을 일찍이 고등학교 제1학년말에 선택한다.

이렇게 DEUG 과정에서까지도 프랑스 학생들은 언제나 자기의 진정한 적성을 찾아서 또는 개인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진로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데 대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에게는 진로선택·변경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올바른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 참다운 적성을 찾아 그것을 완전히 꽃피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학의 제1기 과정으로는 DEUG 이외에 또 DEUST(Diplôme d'études universitair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대학 과학·기술교육 수료증)라는 학위가 있다. DEUST에는 약 80개의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는 2년간에 공업분야와 제3차산업 분야의 미래의 고급기술자들에게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에는 이 DEUST와 같은 학위(자격증)가 없다. 그렇다면, 단기의 고등교육 즉 2년제의 전문대학 대신에 장기의 고등교육을 받으려고 4년제 대학에 들어갔다가, 도중에 가정형편 등 일신상의 사정으로 장기의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 프랑스에서는

DEUST 외에도 이전에 이수한 학업을 인정받으면서 다른 교육과정 또는 기관으로 전과·전학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상 전문대학 등으로 전학할 수 있는 길도 없으니, 아무런 자격증도 없이 중도퇴학의 낙인만 찍힌 채 대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 2. 제2기 과정 -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DEUG 취득 후 학사학위(licence)를 준비하고 이어서 석사학위(maîtrise)를 준비한다(각각 1년 과정). 학사학위는 석사학위 과정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주는 학위이지만 또한 행정고시나 교원시험 또는 전문학교(신문학교, 상업학교 등)의 입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준다. 석사학위는 DESS나 DEA<sup>11)</sup>에, 또는 전문학교(사법관, 변호사 양성 학교 등)에 들어가는 응시자격을 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사회생활에 들어갈 수도 있게 한다.

제2기과정에는 순수한 연구학위인 학사, 석사학위 외에 제1기과정에서처럼 직업 전문의 다양한 학위들이 있으므로 3년 후든 4년 후든 언제든지 사회생활에 들어갈 수 있다.

### ■ 전문학사학위(Licence professionnelle)

이 학위는 2000년 신학년도에 기업들과의 협동에 창설된 것으로 멀티미디어, 신소재 등 새로 출현한 직업들, 대규모 배달, 운송 보급 등 인력보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들에 관한 교육인데, 기업에서 12 내지 16개월간의 연수를 갖게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업계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창안된 것이다. Bac+2<sup>12)</sup> 수준의 학위소지자면 누구나 다 이 학위의 선택 지원자격이 있지만 특히

11) 아래 (3.) '제3기 과정'을 볼 것.

12) bac+2는 바칼로레아 취득 후 2년 과정의 고등교육으로 얻을 수 있는 학위. 대학의 학위로서는 bac+2는 DEUG, bac+3은 학사, bac+4는 석사학위에 해당한다.

DEUG와 BTS, DUT의 학위소지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 전문석사학위 (Maîtrise professionnelle)

이 학위는 중간에 학사학위 없이 DEUG 취득 후 2년간에 준비한다. 이 학위의 특징은 직업에의 적응, 다량의 연수, 전문가들의 현장지도, 그리고 엄격한 학생선발이다. 이 학위의 소지자들은 곧장 노동시장에 나가지만 또한 DESS나 상업학교, 기사학교에서 보충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 과학·기술 석사학위(MST : Maîtrise de sciences et techniques)에는 공업생산 자동전산 처리, 기업 법률, 회계, 재정 등 여러 분야의 학위가 있다.

- 경영학 석사학위(MSG : Maîtrise de sciences de gestion)는 재정과 마케팅을 두 중심축으로 하여 경영인을 기른다.

■ 대학전문원(IUP : Institut universitaire professionnalisé).

전문석사학위는 흔히 IUP에 통합되어 있다. 이 경우 그 입학수준이 달라진다(bac+2 대신 bac+1로 입학, 3년간 수학). 석사학위 MIAGE(Maîtrises de méthodes informatiques appliquées à la gestion, 전산응용 경영학 석사 학위) 또는 MSG가 그러한 경우이다. 3백개 이상의 대학전문원(IUP)이 있는데 제3차산업(경영, 은행, 관광 등) 또는 공업(화학, 전자공학, 정보 자동처리학 등) 분야와 관련된 약 20개의 전공교육을 제공한다. 주로 bac+1의 수준에서 들어가(bac+2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3년간에 DEUG, 학사, 석사학위를 차례로 취득하는데, 성적에 따라서 기사(ingénieur) 칭호를 얻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이 기사-석사 학위의 소지자는 그것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지만 또한 제3기과정의 DRT(아래 '3.제3기과정' 참조) 학위에 들어가 학업을 계

속할 수도 있다. IUP는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Magistère.

Magistère는 DEUG 취득 후 3년간에 준비하는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 학위인데 매우 인기가 있다. 이것은 대학학위이지만 그 학생들은 각 단계에 국가학위인 학사학위, 석사학위, DEA 또는 DESS를 취득한다. 매우 엄격한 전형을 거쳐 선발되며 입학정원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 3. 제3기 과정

직업생활 쪽으로 나가든 연구생활 쪽으로 나가든 간에 제3기과정은 때로는 매우 엄격한 전형을 거쳐서 선발되지만 반드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 고등 전문연구 수료증(DESS : Diplôme d'études supérieures spécialisées). 이 학위는 3개월 내지 6개월의 연수를 포함하는 1년간의 꾸준한 공부 끝에 얻어진다. 직업에 적합한 이 학위는 기업주들로부터 좋은 인정을 받고 있다.

■ 박사논문작성 자격증(DEA : Diplôme d'études approfondies).

DEA는 1년간의 연구기초교육을 인정하는 학위로서 박사학위논문 등록에 필수적인 패스포트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bac+5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학생들이 얻으려고 애쓰는 학위이기도 하다. 이 학위는 특히 과학, 법률, 경제 등 분야에서 DESS와 같은 구실을 할 수 있다.

■ 기술연구 수료증(DRT : Diplôme de recherche technologique).

DRT는 IUP를 나온 학생들과 함께 기사학교 마지막 학년 학생들도 역시 들어갈 수 있는 학위로서 기업과의 협력 아래 특정의 필요에 부응하는 응용

“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교육뿐 아니라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서  
극도의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는 슬기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이젠 미·일의 편중에서 벗어나 여러 선진국들의  
교육제도를 두루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신중히 개혁해야 하지 않겠는가?

”

연구작업을 수행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 Mastaire.

Mastaire는 최신의 대학 간판인데 이는 하나의 학위가 아니라 하나의 등급으로서 DEA, DESS, DRT, 공립학교의 기사학위 또는 조형예술 고등국가학위(DNSEP : Diplôme national supérieur d'expression plastique) 등 학위의 소지자들에게 수여된다. 이러한 '공통적인' 호칭의 목적은 유럽에서의 각국 고등교육의 상호 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프랑스의 bac+5 수준을 명료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 기사학교 (Ecoles d'ingénieurs)

120개 이상의 기사학교가 대학에 소속해 있다. 학생모집은 대부분 DEUG 이후 경쟁시험으로 또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실시되지만 언제나 매우 선택적이다.

4. 노동시장에서의 그랑데콜과 대학출신자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요즘 노동전선에서 대학출신자들은 그랑데콜과 어깨를 견줄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서 기업판매부에 채용된 젊은 DEA 또는 DESS 소지자의 평균연봉은 30,490€ (42,686,000원)인데 대해 그랑데콜인 상업학교 졸업자는 30,032€ (42,045,000원)를 받는다. 또 박사학위 소지자가 35,673€ (49,942,000원)을 받는데 비해 기사학교 출신 동료는 초봉으로 33,234€ (46,528,000원) 밖에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DEA 또는 DESS 소지자는 직장에서 석사학위 소지자의 월급보다 183€ (256,000원)를 더 받는데, 이 차이는 근무 햇수가 많아질수록 더 벌어져 2~3년의 경력 후에는 335€ (469,000원)나 차이가 난다. 그러니 이런 점에서도 되도록이면 높은 학위를, 따라서 되도록이면 장기의 고등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업자는 30,032€ (42,045,000원)를 받는다. 또 박사학위 소지자가 35,673€ (49,942,000원)을 받는데 비해 기사학교 출신 동료는 초봉으로 33,234€ (46,528,000원) 밖에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DEA 또는 DESS 소지자는 직장에서 석사학위 소지자의 월급보다 183€ (256,000원)를 더 받는데, 이 차이는 근무 햇수가 많아질수록 더 벌어져 2~3년의 경력 후에는 335€ (469,000원)나 차이가 난다. 그러니 이런 점에서도 되도록이면 높은 학위를, 따라서 되도록이면 장기의 고등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IV. 맺는 말

이상에서 프랑스의 대학교육의 모습이 우리나라 하고는 판이함을 보았다. 아래에 프랑스 대학교육의 특성을 몇 가지 지적해 보고자 한다.

- 프랑스에서는 선다형(選多型)이 아니라 논술형의 시험인 바칼로레아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고 그 합격자들에게는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여 거의 무상교육과 진배없는 교육을 제공한다.
- 일종의 고등전문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랑데콜은 엄선된 영재들을 모아 국가의 동량(중견간부)을

길러낸다. 경쟁이 치열한 이 그랑데콜의 입학시험에 대비하여, 특정의 고등학교에 병설된 그랑데콜 준비반에서 바칼로레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시험준비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물론 무상이므로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엄청난 사교육비의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대학에서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전과, 전학할 수 있다. 실제로 전과, 전학하지 않고 2년간에 DEUG를 취득하는 학생수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는 엄정한 평가와 함께 적성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선택자유와 확보는 교육효율을 제고한다.

- 학사, 석사, 박사 등 전통적인 학위 외에 수많은 전문직업학위가 있어 학생들은 언제든지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업생활에 들어갈 수 있다. 바꾸어 말해서 프랑스에서는 대학이 실업계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 대학에 교육학과가 없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도 따로 없다. 프랑스에서 초·중등교육 교원양성은 전국의 각 교육구에 하나씩 대학에 병설되어 있는 IUFM(Institut universitaire de formation des maitres 교원양성 대학원)에서 학사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매우 불합리한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제도에

는 너무나도 낭비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 구조조정 의 첫째 대상으로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은 통폐합되어야 한다.<sup>13)</sup>

그 밖에 상론하자면 한이 없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교육뿐 아니라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서 극도의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열이 너무나도 높을뿐 아니라 제각기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고 비판하고 행동하는 것일까? 비교는 슬기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이젠 미·일의 편중에서 벗어나 여러 선진국들의 교육제도를 두루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신중히 개혁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학교육**

#### 정기수

프랑스 보르도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공주대 교수로 정년퇴임하였다. 현재 AMOPA 한국협회 회장(AMOPA는 Association des Membres de l'Ordre des Palmes Académiqu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수훈자 협회)으로 활동 중이다.

13) 10여년 전에 일대 개혁이 단행된 프랑스의 교육제도와 IUFM에 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大學教育』, 1993. 3-4 (통권 62호), pp. 68-73에 실린 필자의 논문 '프랑스 고등교육과 교원양성제도의 개혁' 참조.